

특별기획

군산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

군산시가 2016년 공무원 정보지식인 4명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2016년 군산시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외부 전문가에 문제 출제와 채점을 의뢰해, 수험자 본인이 외부 전문가 웹사이트에 직접 연결해 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회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최우수상에 한민물류과 정명화, 우수상에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건강관리과 국현나, 주민생활지원과 강희창이 각각 수상자로 결정됐다.

성적 우수자 4명은 오는 28일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 군산시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되며, 입상 시 상장 및 상금을 수여받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소방서, 산불예방 캠페인 안전산행·수칙 교육 실시

익산소방서는 지난 8일 여산면 용화산 및 당제산 등산로 입구에서 익산소방서 직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악안전사고 및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 안전산행지도, 심폐소생술(CPR) 등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했다.

용화산 및 당제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안내문 배부를 시작으로 주변 등산로를 걸으며 등산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 등산 안전수칙 교육, 등산점 스트레칭 및 힐링, 힐링체크 등 기초건강검진과 산행구간의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 활동도 실시했다.

김석용 익산소방서장은 가을철 산행시즌을 맞이하여 시민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다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익산소방서(서장 김석용)는 다음달 14일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참여 작품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다가오는 '제69회 불조심 강조의 달'(11월)을 준비하고 화재예방을 소재로 하는 작품 공모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불조심 등의 안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학교 및 가정에서 불조심을 실천수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한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소방서 홈페이지(http://issan.sbxg.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불교 신도연합회 저소득 가정에 연탄 후원

익산불교신도연합회가 겨울을 대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을 전달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익산지역 불자들의 모임인 익산불교신도연합회는 지난 9일 시청 앞에서 기념식을 갖고 송학동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 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익산 불교신도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스님과 불자 60여명은 이날 54가구에 총 1만 800장의 연탄(600만원 상당)을 지역 불자들과 함께 직접 배달했다.

이택회 불교신도연합회장은 "앞으로도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안 잠정적 마련

지역 개발에 가속도 붙나

관련부처 협의 거쳐 12월경 사업 최종 완료 계획

군산시가 2400억원 규모의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향후 해당 지역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책을 감안해온 지역에 대해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2009년 2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국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오는 2017년까지 1차 사업 진행이 한창이다.

1차 사업은 도로개설 9건을 비롯해

총 1364억원이 투자되며, 백토고개 지하차도와 공항로 개설공사 등 4개 사업이 완료되고, 미성·열대사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은 오는 2017년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가 이번에 잠정적으로 수립한 2차 지원사업은 국비 50% 등 총 2483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도로교통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6건에 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행정부처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경 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차 사업은 도로분야 26건, 문화복지 1건 등이며, 지역별로는 옥서면, 옥구읍, 미성동, 소룡동, 나운3동, 나운1동, 해신동 등이 해당된다.

사업별로는 옥서면 비행장사거리~

군산공항 도로확장 옥구읍 어은리 능어촌도로 확장, 소룡동 소룡시내체육공원 일원 육교설치, 나운3동 은과관광지 입구도로확장 나운동 상삼동 방구간 스노우멜팅 설치사업 해신동 동백대교 20호 광장 조성사업 등이 시선을 끌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들 사업들이 연말 최종 확정돼 본격 추진되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 지역개발 가속화 등의 부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중인 1차 사업가운데 일부는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예산이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여구역사업에 대한 시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2차 사업들의 최종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문정곤기자

한·핀란드 문화예술 교류회 성료

원광대, 글로벌 산학교류 프로그램 통해 산학협력 확산에 박차 가할 계획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에서 열린 2016 한·핀란드 문화예술 교류회가 이로 수오미네 주한 핀란드 대사과 키르시 무스타라흐티 ACCAC 대표, 이지영 익산시 부시장, 김도중 총장을 비롯해 익산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글로벌 산·학·관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날 문화예술 교류회는 익산시가 주최하고, 원광대 LINC 사업단과 핀란드 문화콘텐츠 기업 ACCAC에서 공동주관했다.

학생회관 대강당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된 한·핀란드 문화예술 교류회는 핀란드 챔버오케스트라의 흥겨운 선율과 연극, 핀란드 대표 캐리커처인 무민 뮤지컬, 익산시립예술단의 하모니

를 비롯해 원광대 창업동아리 원악의 퓨전국악, TOP의 창작댄스 등이 펼쳐졌으며, 부대행사로 마련된 핀란드 의과대학팀의 시제품 및 학생 캡스톤디자인 작품 전시회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2부에서는 양국의 우수중진과 더불어 행사에 참여한 익산시민 및 산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비비큐 만찬이 이어졌으며, 안코르공연을 이어간 핀란드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모든 참석자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도중 총장은 "한·핀란드 문화예술 교류회가 원광대에서 개최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원광대는 문화콘

텐츠 산업을 비롯한 글로벌 산학교류 사업으로 양국의 동반성장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수오미네 주한 핀란드 대사는 "대한민국의 문자가 창세된 뜻깊은 한글날에 양국 문화교류의 장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양국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류에 필요하다면 주한 핀란드 대사관이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대는 글로벌 현장실습과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해외 유수 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글로벌 산학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학협력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문화재 그리기대회' 성료

익산시 왕궁리유적전시관에서 지난 8일 개최된 제7회 문화재 그리기 대회가 252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부(1-3학년), 초등학교 고학년부(4-6학년)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왕궁리유적전시관 내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유물 왕궁리유적 인근 풍경 등을 그렸다.

문화재 그리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익산아양초등학교 6학년 유나영 외 2명, 우수상은 이리부천초등학교 3학년 문용수 외 2명, 장려상은 전주초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정호 외 37명이 받게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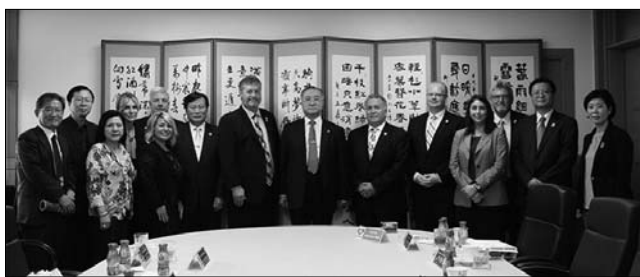
으며, 특선 12명, 입선 58명 등 총 220명의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이날 심사를 마친 정병운 심사위원장(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은 "어린이들이 문화재 그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우수작품 34점은 11월에서 12월까지 왕궁리유적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 전시할 예정이다.

왕궁리유적전시관에서는 세계유산인 왕궁리유적의 홍보와 문화재 보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그리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원광대 천연물CSI특성화사업단 워싱턴 카운티·JG BLI와 국제교류회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천연물CSI특성화사업단과 미국 메릴랜드주 워싱턴 카운티 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 교류단이 지난 5일 원광대에서 국제교류회를 진행했다.

교류회에는 원광대 천연물CSI특성화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한약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 원광대를 방문한 워싱턴 카운티 그래픽 메러이 군수 및 의회위원 JG BLI 이원로 대표 등이 함께했다.

특히 이번 교류회는 이영미 천연물 CSI특성화사업단장과 권동렬 원광대 약연구소장, 김성철 회귀난치성신경

근육질환센터장 등이 지난 7월 미국 헤거스타운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메릴랜드대학 통합의학센터와 워싱턴 카운티, JG BLI와 함께 공동 교류 협약을 맺은 후 이루어진 후속 사업으로 진행됐다.

방문단은 한약학과 학생 및 교수들과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협의했으며, 약학대학 실험실을 돌아본 후 김도중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인재양성 및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박물관로컬푸드 22일 KCN 가요열전

군산박물관로컬푸드는 시민들의 숨겨두었던 노래와 춤 실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KCN 가요열전을 펼친다.

이번 KCN 가요열전은 박물관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1주년 기념으로 직매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군산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본선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박물관로컬푸드직매장 옆 야외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며, 매주 토요일 열리는 박물관로컬푸드 직거래장터와 함께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본선에 앞서 예심은 14일 오후 2시

월명동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에서 열리며, 예심 참가접수는 박물관로컬푸드직매장에서 당일 예심 전까지 접수 받는다.

본선 당일에는 예심을 통과한 참가자들이 노래 경연을 펼칠 예정이며, 초대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진다.

수상자(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에게는 상장 및 상품 수여되며, 본선 후에는 푸짐한 경품 추첨도 이어진다.

박물관로컬푸드 관계자는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고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희망나눔 연합모금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는 10일 읍면동 복지허브화 활성화를 위한 '희망나눔 연합모금 업무협약'을 군산시·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해 정윤모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27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심정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민간복지자원의 발

굴?지원을 통해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내에서 해결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데 상호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연합모금 협약을 통해 CMS를 이용한 정기 기부활동 등으로 연말에 집중되어 있던 기부문화를 상시 나눔 모금체제로 전환하고, 읍면동별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과 주민주도의 나눔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익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현장방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이 지난 9일 조배숙 의원 정현을 익산시 장과 함께 지정폐기물이 불법매립된 (유)해동환경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방문은 지정폐기물 관리주체인 환경부가 이번 사건에 대하여 모르쇠 자세로 일관하며, 익산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자 1천억원 이상의 정화비용 책임과 관련해 정현을 익산시장이 국민의당 차원의 처리대책을 요청해 이뤄졌다.

이상돈 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지정폐기물 불법매립된 석산북구지의 침출수 관리와 익산시의 현장 조치 상황 등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그동안 지하수를 식수, 농업용으로 사용해 왔는데,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다량 포함된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로 불안해서 살수 없게 되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밝혀지고,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 당 소속인 조배숙 의원도 이날 의견을 같이 하며,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정폐기물 무단매립 등 유사 사건들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업무범위를 확실히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환경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 차원

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4일 예정인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정현을 익산시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며, 지정폐기물 관리책임에 대한 이상돈 의원의 집중 공세에 환경부가 그 동인의 입장을 고수할지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서 중앙지구대, 공감 받는 치안 구현 '귀감'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에서는 지난 5일 "주차해 놓은 전동휠체어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장애인 노부부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전동휠체어를 잃어버린 내용을 듣고 수순문 끝에 찾아드려 공감 받는 치안을 구현하여 귀감이 되고 있다.

노부부는 교통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으로 특히 할머니는 현재 한쪽 다리를 거의 쓰지 못해 3개월 전 시점에서 전동휠체어를 지급받아 생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전날 저녁 할아버지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중 배터리가 떨어져서 충전기까지 고장이 나 어쩔 수 없이 남중동 상가 앞에 주차를 해두고 일단 귀가 후 다음날 찾아갔으나 전동휠체어가 없어져 신고를 하게 됐다.

출동한 윤경용 경위와 백경주 순경은 딱한 노부부의 사정을 듣고 주차해 놓은 장소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여 수순문 끝에 전동차를 발견하였고 고장난 전동휠체어를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후 장애인 콜택시 요청하였으나 노부

부는 영세민으로 택시비 지급이 어렵다고 하자 경찰관 개인돈을 지불하여 자가로 귀가 하도록 하고 장애인협회를 통해 휠체어 수리도 요청하여 노부부의 군심을 덜어 주었다.

윤 경위는 "힘없는 노부부를 보고 차마 정동차만 찾아주고 돌아올 수 없어 경찰관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도움을 드린것이고 앞으로도 범죄예방 및 검거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